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17호

발행인 : 조민제
발행일 : 2014년 2월 24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2.25 총력투쟁은 정권 퇴진 투쟁의 본격적인 시작

2.25 국민 총파업은 시작이다

박근혜 정권은 취임 1년만에 퇴진투쟁에 직면한 최초의 정권이다. 그만큼 짧은 기간에도 많은 실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해준 정권이다. 그러나 말도 안되는 공안몰이를 통해서 이런 분노를 표출할 수 없도록 공포감을 조성해서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 증거까지 조작하며 간첩사건을 만들어내고, 32년만의 내란음모죄 부활로 정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이런 때일수록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이 필요하다. 25일 국민총파업은 그 투쟁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으로 국민적 저항 불러오자

지금 민주노총의 객관적 상황은 총파업을 조직하기에 쉽지 않다. 금속노조도 그리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많은 노조, 연맹들이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철도노조는 25일 파업에 동참하고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등도 대규모 파업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객관적 조건은 어렵더라도 이번 총파업 투쟁이 정권퇴진 투쟁의 거대한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국민총파업은 민주노총만의 총파업을 넘어 대리점주를 비롯해 자영업자들까지도 함께 하고, 노점상들도 함께 하는 말 그대로 '국민 총파업'이다. 소통은 차단되고 공안몰이만 판치는 정국 속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표출될 방법이 없다. 국민 총파업은 국민 소통의 시작, 공안몰이의 종말을 예고하는 국민적 저항으로 커져가야 한다. 민주노총은 국민적 저항을 만들기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정권 퇴진 투쟁은 멈출 수 없다!

이번 국민 총파업 한 번으로 정권이 퇴진할리 만무하다. 정권 퇴진 투쟁은 2014년을 거쳐 박근혜의 남은 임기 동안 멈추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도 이번 국민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성사시키고, 이후 더 강력한 퇴진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성격상 앞으로 노동계에 더욱 큰 탄압이 있을 것은 자명하다. 탄압이 주저앉지 말고 더 큰 저항을 조직하자. 금속노조의 선도적인 투쟁은 민주노총의 투쟁을 불러일으키고, 민주노총의 투쟁은 전 국민적 저항을 만들 것이다. 25일 힘있게 투쟁을 시작하자!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조파괴 분쇄!

2.25 국민 총파업

충북 : 15시30분 행진시작 / 16시30분 결의대회(청주 상당공원)
대전 : 16시 결의대회(서대전 시민공원) / 18시 촛불집회(대전역)

불법담합, 부당해고에 대표이사는 꿀먹은 벙어리?

콘티넨탈과 보쉬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까? 최근 콘티넨탈지회와 보쉬전장지회는 불법담합과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대표이사 사퇴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두 회사는 노조파괴를 저지르면서 쌍둥이처럼 똑같은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했다. 지회 간부 해고, 어용노조 설립, 금속노조와 교섭 지연, 임금 차별 등등 셀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면서 마치 짝퉁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불법이라면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하곤 했다.

그러던 두 회사가 불법담합까지도 함께 저질렀다. 일본계 부품사인 덴소와 보쉬전장, 콘티넨탈은 불법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보쉬전장은 적자 타령하며 성과금 협의 과정에서 지회 간부를 해고했는데, 뒤로는 불법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이다. 콘티넨탈은 이번에 무려 46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그런데도 부당해고, 불법담합에 대해 대표이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콘티넨탈 대표이사는 자신은 몰랐던 일이라고 발뺌하고 있고, 보쉬전장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대표이사가 자신의 회사가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담합했던 사실을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 4년에 걸쳐 진행된 것인데도?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은 정당한 이유로 정당한 절차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고가 불법이라면 책임지겠다는 대표이사들은 법원 판결 이후 꿀먹은 벙어리다.

양 지회는 21일(금)부터 아침에 공동 출투를 시작했다. 앞으로 격주 금요일 아침마다 공동으로 출투를 진행하며 쌍둥이처럼 불법을 저질러온 양 회사의 대표이사 퇴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도 함께 물러나길 기대한다.



노조파괴 해결아러 희망버스가 달려온다

전 사회적인 연대의 상징, ‘희망버스’가 옥천 유성 농성장으로 올 준비를 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 폭발적인 연대를 만들어냈던 희망버스가 이번엔 옥천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8일 고공농성 중이던 유성아산지회 홍종인 지회장이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유성투쟁은 지상과 고공의 양면투쟁으로 전환되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송경동 시인은 유성투쟁에 진작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희망버스를 옥천으로 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성투쟁이 3년째가 되었는데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한 마음도 함께 전했다.

그동안 희망버스는 많은 투쟁에 연대를 조직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를 만들어왔다. 이번 희망버스는 3년 넘도록 시간을 끌어오다가 결국 무혐의 처리된 노조파괴 사건의 부당함을 사회적으로 폭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부결의금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24일 현재

수입	지출	잔액
66,568,050원	24,386,830원	42,181,220원

지출내역

날 짜	내 용	지 출
2013-10-18	콜텍 8월 투쟁기금	2,240,000
2013-10-18	콜텍 9월 투쟁기금	2,240,000
2013-10-30	유성영동지회 수련회	879,220
2013-10-30	대전검찰청 9월 투쟁	692,200
2013-10-31	10/15 유성집회 공연 및 앰프	500,000
2013-11-13	대전검찰청 10월 투쟁	609,400
2013-11-19	콜텍 10월 투쟁기금	2,240,000
2013-11-19	유성 투쟁사례집 발간사업	1,000,000
2013-11-28	국정감사 대응 투쟁	621,850
2013-11-28	유성 고공농성	1,130,000
2013-12-17	콜텍 11월 투쟁기금	2,240,000
2013-12-17	유성 투쟁사례집 발간사업	2,230,000
2013-12-27	대전검찰청 11월 투쟁	580,200
2013-12-27	콘티넨탈지회 수련회	858,190
2013-12-27	복수노조 사업장 CCTV 소송	330,000
2013-12-27	유성 투쟁사례집 발간사업	1,000,000
2013-12-31	유성 고공농성	1,862,550
2014-01-07	콜텍 12월 투쟁기금	2,240,000
2014-01-10	대전검찰청 12월 투쟁	597,000
2014-01-29	유성 12/24 문화제	296,220
계		24,386,830



이 주의 사진

※ 사진 제보받습니다_iswcool@naver.com



<2.20 노조파괴 특검 촉구 결의대회>



<2.20 노조파괴 특검 촉구 결의대회>



<부당 불법담합, 부당해고 규탄 현수막>



<부당 불법담합, 부당해고 규탄 현수막>